1. 머리말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연대기류라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실록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연대기 자료인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에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과 비교가 된다.

실록이 매우 귀중한 자료로 만큼 우리가 실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장.
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실록의 손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의 관심을 끌었는데 실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던 범어 손상된 실록이 훼손이나 유일본이 아닌가 적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완전한 해도 현재 정축산 사고본, 태백산 사고본, 적상산 사고본 등 3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태조~명종 실록의 문제 정보는 최소한 3벌이 있다.1)

이 세벌의 실록은 문자정보를 의형이든 신조의 인조대 이후는 특별히 다른 정축산 사고본에 있는 태조~명종 실록만이 편찬 간행 당시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표가 촉멸석 비단, 내지가 밀랍 처리되어 있는 밀랍본으로 유일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고본 실록과 다르다. 그리고 이 중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

그럼에도 손상 실록의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제목에 '조선왕조실록 보존',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2) 마치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대한 보존처리, 또는 밀랍본 전체를 복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대상은 '손상된 밀랍본 실록'에 국한되어 있다. 밀랍본 실록 중에서도 손상된 실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손상되어 있는 실록은 정확하게 밀어서 정축산 사고본에 들어있는 태조~명종 실록 중의 극히 일부이다. 정축산 사고본 실록에서도 인조 이후의 실록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태백산 사고본 실록과 오대산 사고본 진준본은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이라는 표현은 또한 손상된 실록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의미인데 마치 밀랍본 실록 전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손상된 실록의 복원만으로는 밀랍본 실록 전체가 복원되지 않는다.

1) 춘추관 사고본과 오대산 사고본도 있지만 태조~명종의 경우 오대산 사고본은 성층과 중층 실록의 일부가 남아있고, 춘추관 사고본은 태조, 경종, 단종, 인종을 제외한 각 왕대에 1~7책 정도씩 남아있다. 따라서 문자정보는 최소 3별, 최대 5별까지 있을 수 있다.
2) 송기종 외, 2005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 서울대학교 규정학연구원
조명록 외, 2006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조명록 외, 2008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조명록 외, 2009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밀랍본 실록 전체를 원형 복원하기 위해서는 손상 실록의 보존처리 이외에도 다른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 밀랍본 실록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아예 없어진 것도 있고 표지가 없어져거나 내지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랍본 실록 전체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예 없어진 실록의 내용까지 복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1660년 정국산 사고로 옮겨진 태조~명종 실록은 1660년대에 수리복원 작업으로 ①임진왜란 이전 밀랍본 원형, ②부분적으나 원형을 잃은 밀랍본, ③1606년 제간행 실록, ④적상산 사고본 등사, ⑤기타 등 5가지의 원형을 갖게 되었다.4) 이 때 고정된 원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밀랍본 실록 전체를 임진왜란 이전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②~⑤의 실록에 대해 원형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제간행으로 인해 달라진 내용을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고에서의 실물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서고에서의 실물조사를 통해 태조~명종 실록의 정본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태조~명종 실록의 원형과 원형의 변화

1) 태조~명종 실록의 원형5)

1413년 태조 실록 편찬을 시작으로 1426년 정종 실록, 1431년 태종 실록이 차

3) 임진왜란 이후 전주사고로부터 강화부 사고까지의 이동 과정은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만 양만 과정에서의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아 남아 있다. 이동과정에 대해서는 丸鶴金作, 1938『朝鮮全州史績実録の移動と宣祖の實録復印』『史學雑誌』49篇 6號(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史學會) ; 申英鎬, 1964『朝鮮王朝實録の編纂と保管』『韓国史両해集成』13-82쪽 ; 배현숙, 2002『朝鮮実録研究序説』(도서출판 태일사) : 송기중 외, 앞의 책 참조.
4) 이상찬, 2001『 전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관리』『규장각』39집 참조.
5) 이상찬, 위 논문 참조.
레로 편찬되었는데 먼저 각 왕별로 실록의 편찬시기와 권수, 책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순서</th>
<th>왕명</th>
<th>권수</th>
<th>책수</th>
<th>최초 편찬 시기</th>
<th>전주 사고본</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태조</td>
<td>15</td>
<td>15</td>
<td>1413(세종 13)</td>
<td>1445(세종 27)</td>
</tr>
<tr>
<td>2</td>
<td>경정</td>
<td>6</td>
<td>6</td>
<td>1426(세종 8)</td>
<td></td>
</tr>
<tr>
<td>3</td>
<td>태종</td>
<td>36</td>
<td>36</td>
<td>1431(세종 13)</td>
<td></td>
</tr>
<tr>
<td>4</td>
<td>세종</td>
<td>163</td>
<td>163</td>
<td>1454(단종 2)</td>
<td></td>
</tr>
<tr>
<td>5</td>
<td>문종</td>
<td>13</td>
<td>13</td>
<td>1455(세조 1)</td>
<td>1473(성종 4)</td>
</tr>
<tr>
<td>6</td>
<td>노산군</td>
<td>14</td>
<td>14</td>
<td>1469(예종 1)</td>
<td></td>
</tr>
<tr>
<td>7</td>
<td>예조</td>
<td>49</td>
<td>49</td>
<td>1471(성종 2)</td>
<td></td>
</tr>
<tr>
<td>8</td>
<td>예종</td>
<td>8</td>
<td>8</td>
<td>1472(성종 3)</td>
<td></td>
</tr>
<tr>
<td>9</td>
<td>성종</td>
<td>297</td>
<td>94</td>
<td>1499(연산군 5)</td>
<td>1499(연산군 5)</td>
</tr>
<tr>
<td>10</td>
<td>연산군</td>
<td>63</td>
<td>37</td>
<td>1509(중종 4)</td>
<td>1509(중종 4)</td>
</tr>
<tr>
<td>11</td>
<td>중종</td>
<td>105</td>
<td>105</td>
<td>1550(명종 5)</td>
<td>1550(명종 5)</td>
</tr>
<tr>
<td>12</td>
<td>인종</td>
<td>2</td>
<td>2</td>
<td>1550(명종 5)</td>
<td>1550(명종 5)</td>
</tr>
<tr>
<td>13</td>
<td>명종</td>
<td>34</td>
<td>34</td>
<td>1571(선조 4)</td>
<td>1571(선조 4)</td>
</tr>
<tr>
<td>합계</td>
<td></td>
<td>805</td>
<td>576</td>
<td></td>
<td></td>
</tr>
</tbody>
</table>

6) 실록 간행의 완료를 기록하고 있는 실록의 날자를 노산군일기를 제외하고 태조실록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 13년(1413) 3월 22일, 세종 8년(1426) 8월 15일, 세종 13년(1431) 3월 17일, 단종 2년(1454) 3월 30일, 세조 1년(1455) 11월 10일, 성종 2년(1471) 12월 15일, 성종 3년(1472) 5월 9일, 연산군 5년(1499) 3월 10일, 중종 4년(1509) 9월 12일, 중종실록 부록, 인종실록 부록, 명종실록 부록.

7) 『세종실록』 세종 27년(1445) 11월 19일. 『인종실록』 성종 4년 6월 8일.

8) 『노산군일기』의 최초 간행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469년 4월 18일 예종이 범례를 보기 위해 “남산 대의일기 및 죽년년대장 기로 소재의 성실”을 내려오라고 총판판에 명령한 기록(『예종실록』 예종 1년 4월 18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469년에 노산군일기의 편찬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단종실록』은 1704년에 부록이 간행되어 15책으로 늘어났다. 1698년(숙종 24) 11월 노산군의 복위로 묘호가 단종으로 되었고 1704년 노산군일기를 단종실록으로 계목을 바꾸었는데 노산군일기 부록은 이러한 경위를 편찬한 것이다.
태조~태종 실록은 필사본으로 한양의 내사고와 충주의 외사고 2 사고만 있었던 시기의 태조, 정종, 태종 실록은 각각 2부씩 편찬해서 각각의 사고에 묶었다.  하였는데 이 실록들은 이후의 실록과 달리 종이가 두겹고 책의 무게도 무거웠다.  1445년 태조, 정종, 태종 실록을 2부로 편찬하여 성주와 전주 사고에 봉안하였는데, 이 실록도 두겹고 무거웠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태조~태종 실록은 1439~45년에 필사하여 전주 사고에 봉안하였던 것으로 세종대 이후 실록에 비해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 중이는 훨씬 두껍다.
세종대 이후의 실록은 활자본으로 세종~예종 실록의 경우 이전 국왕들의 실록처럼 두겹고 무게로 실록은 1건만 만들어서 충주사고에 봉안하였고, 1473년에 이르러서야 ' 작은 활자'로 '가볍게' 3건을 인출하여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봉안하였다.  13)
1592년 4월 출부관, 충주, 성주의 3 사고가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3 사고와 소장 자료 전체가 소실되면서 태조~명종 실록 역시 전주 사고본 1질만 남게 되었다. 전주 사고본 실록은 외형에서 특징이 있는데 촉연색 비단표지에다 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랍으로 처리한 내지로 되어 있었다. 이들 밀랍본 실록의 크기와 판형을 국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9) 태조~명종 실록은 원래 805권 576책이었지만 1600년에 『문중실록』 11권 1책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찬, 2011 논문 참조. 이화에는 804권 575책, 『문중실록』은 12권 12책으로 표시한다.
10) 태조~태종 3대의 실록을 충주사고에 봉안한 것은 1431년이다. 『세종실록』 세종 13년 (1431) 4월 25일조 참조.
11) 『世祖實錄』 세종 12년 11월 17일조.
12) 『世宗實錄』 세종 27년(1445) 11월 19일조.
13) 『노산군일기』의 경우 증간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 4대 국왕들의 실록과 외형이 특갈은 것으로 보아서 1473년 위 4대 국왕들의 실록과 함께 증간된 것으로 보인다.
14) 경복궁의 소실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1592) 4월 14일조 참조.
15) 실록의 크기는 실록을 측정한 결과인데 표의 수차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1cm가지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자가 임의로 대략값을 정리하였다.
<table>
<thead>
<tr>
<th>크기(cm)</th>
<th>태조</th>
<th>정종</th>
<th>대종</th>
<th>세종</th>
<th>문종</th>
<th>노산</th>
<th>세조</th>
<th>예종</th>
<th>상종</th>
<th>연산</th>
<th>중종</th>
<th>인종</th>
<th>명종</th>
</tr>
</thead>
<tbody>
<tr>
<td>황</td>
<td>54</td>
<td>49,5</td>
<td>54</td>
<td>55</td>
<td>55</td>
<td>55,5</td>
<td>55</td>
<td>55</td>
<td>66</td>
<td>71,5</td>
<td>66</td>
<td>68,5</td>
<td>67,5</td>
</tr>
<tr>
<td>중</td>
<td>32</td>
<td>27,5</td>
<td>31,5</td>
<td>30</td>
<td>30</td>
<td>29,5</td>
<td>29,5</td>
<td>29,5</td>
<td>34,5</td>
<td>34,5</td>
<td>35</td>
<td>35</td>
<td>36,5</td>
</tr>
<tr>
<td>원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2</td>
<td>8</td>
<td>12</td>
<td>14</td>
<td>14</td>
<td>14</td>
<td>14</td>
<td>14</td>
<td>16</td>
<td>16</td>
<td>16</td>
<td>16</td>
<td>16</td>
</tr>
<tr>
<td></td>
<td>30</td>
<td>24</td>
<td>30</td>
<td>32~34</td>
<td>32~34</td>
<td>32~34</td>
<td>32~34</td>
<td>32~34</td>
<td>36</td>
<td>36</td>
<td>36</td>
<td>36</td>
<td>36</td>
</tr>
</tbody>
</table>

춘추관에 보관하였던 '무겁고 큰'『제조실록』、『문중실록』、『노산군일기』、『제조실록』、『예중실록』은 1592년에 불타 없어졌고 전주사고에서 보관하였던 위 5대 국왕들의 실록은 작은 황자의 가벼운 실록이 전해지게 되었다.

2) 1636년의 피해

간행 당시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밀랍본 실록 575책은 실록 제간행 작업이 끝난 1606년 5월 '강화부 사고'에 다시 봉안되었다. 비록 1절 밖에 남지 않았고 전란 기간 동안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긴 했지만 밀랍본 575책 1절은 원래의 모습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가 1636년 병자호란 때 태조~명종 실록은 정군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읽어버리게 되었다.

우선 완전히 없어진 경우의 남장 몇 장만 남은 경우를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th>
<th>한 권 전체가 없어진 실록</th>
<th>남장이 전존하는 실록(^{(16)})</th>
</tr>
</thead>
<tbody>
<tr>
<td>태조</td>
<td>2,5,7,8,10,11,13</td>
<td></td>
</tr>
<tr>
<td>정종</td>
<td>2,3</td>
<td>1(12)</td>
</tr>
<tr>
<td>대종</td>
<td>4,6,18,22,29,32</td>
<td>11(12), 16(1)</td>
</tr>
<tr>
<td>세종</td>
<td>1,2,5,6,26,27,30,58,78,79,81<del>84,86</del>91,110,113,156</td>
<td>34(14/18), 56(3), 76(2), 98(3), 115(25파), 155(2), 158(7), 159(10), 163(31/40)</td>
</tr>
<tr>
<td>단종</td>
<td>7</td>
<td></td>
</tr>
<tr>
<td>세조</td>
<td>6,18,20 ~ 22,24,26,28 ~ 30,33,45</td>
<td>15(1), 19(1), 23(4), 25(1)</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예조</td>
<td>4</td>
<td>2(1), 7(5)</td>
</tr>
<tr>
<td>성조</td>
<td>11 ~ 14, 20, 21, 34, 40 ~ 43, 49, 64 ~ 67, 95, 100 ~ 131, 156, 157, 160, 161, 162, 175, 176, 177, 190 ~ 198, 206 ~ 211, 228, 229, 254, 255, 256, 274, 281 ~ 284, 292, 293, 294</td>
<td>15(3), 22(1), 30(2), 35(2), 46(7,13), 50(2), 69(2), 80(2), 91(10), 92(5), 93(4), 94(3), 263(2), 272(3), 273(3), 277(3), 279(2)</td>
</tr>
<tr>
<td>연산군</td>
<td>14,27 ~ 30,38 ~ 43, 47, 52</td>
<td>3(4), 5(1), 6(2), 19(4), 20(8), 31(5)</td>
</tr>
<tr>
<td>종종</td>
<td>1,3,8,15,17,21,22,23,26,31,42,49,56,73,80 ~ 82,87,90,100,105</td>
<td>14(5), 75(1), 79(4), 86(3)</td>
</tr>
<tr>
<td>영종</td>
<td></td>
<td>23(3)</td>
</tr>
</tbody>
</table>

그 다음 밀랍본의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표지 탈락 또는 파손, 내지의 납장 또는 과장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 표지 탈락 및 내지 납장 성황

<table>
<thead>
<tr>
<th>양</th>
<th>총 영색 비단 표지(青絲)</th>
<th>표지 탈락(箋面)</th>
</tr>
</thead>
<tbody>
<tr>
<td></td>
<td>내지(箋面) 없음</td>
<td>납장 있음</td>
</tr>
<tr>
<td>태조</td>
<td>1,3</td>
<td>6</td>
</tr>
<tr>
<td>경종</td>
<td>4,6</td>
<td></td>
</tr>
<tr>
<td>태조</td>
<td>2,3,8,10,14,15,17,23 ~ 27, 34, 35, 36</td>
<td>1,7,9,19,20,21,30,33, 5,12,13,28,31</td>
</tr>
<tr>
<td>문중</td>
<td>2,3,5,6,10</td>
<td>1,4,7,8,9,12,13</td>
</tr>
<tr>
<td>단종</td>
<td>4,5,8,12,14</td>
<td>3</td>
</tr>
<tr>
<td>세조</td>
<td>3,7,8,11,31,34,35,41,42, 43,44,47,48, 2,17, 1,4,5,9,10,12,14,16,27,36,37,38, 39,40,46,49</td>
<td>13,32</td>
</tr>
</tbody>
</table>

16) ( )은 간존 장수로서 전체 장수를 알 수 있는 경우 ‘간존 장수/전체 장수’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위의 내용을 각각별로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

| 연산 | 2,17,18,23〜26,32〜36,44,50,51,53,54,57,58,61,62 | 1,4,7〜13,15,16,21,22,23,37,45,46,48,49,55,56,59,60,63 |
| 중증 | 11,12,19,28,29,33,34,38,39,46,52,63,67,76 | 9,13,25,68,72,85,97,98,99,101 | 5,18,20,32,36,40,41,47,48,58,60,64〜66,88,89,92,93,102 | 2,4,6,7,10,16,24,27,30,35,37,43,44,45,50,51,53,54,55,57,59,61,62,69,70,71,74,77,78,83,84,91,94,95,96,103,104 |
| 안종 | 1,2 |
| 비종 | 15,21,25 | 9 | 3,6,12,17〜20,22,24,27,28,30,31,34 | 1,2,4,5,7,8,10,11,13,14,16,26,29,32,33 |

| 〈표 5〉 | 진주사고 등 실록의 피해 성형 종합 |
| 낙원 | 15 | 2 | 1 | 4 | 1 | 7 |
| 정종 | 6 | 2 | 0 | 1 | 0 | 3 |
| 태종 | 36 | 15 | 0 | 8 | 5 | 8 |
| 세종 | 163 | 32 | 1 | 50 | 48 | 32 |
| 문종 | 12 | 5 | 0 | 7 | 0 | 0 |
| 단종 | 14 | 5 | 1 | 6 | 1 | 1 |
| 세조 | 49 | 13 | 2 | 16 | 2 | 16 |

17) 1664년에 황색 한치 표지[黃幷衣]로 개장한다.
18) 크기는 필요한 것 이상이지만 생겨난다고 1664년 개장 표지가 아니다.
19) 이 표는 이상한, 2011년의 논문에 이미 발표되었다. 그러나 통계처리가 정밀히 하여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였다.
전체 804건 중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록이 587건, 밀랍 비단표지가 지만 낙장이 있는 실록이 18건, 밀랍본으로 표지만 떨어져 나간 실록이 230건, 밀랍본으로 표지가 떨어져나가고 낙장이 있는 실록이 184건, 낙원으로 처리된 실록이 217건이었다. 20) 표지탈락 또는 낙장 등의 피해를 입긴 했지만 밀랍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실록이 587건으로 그 중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155건으로 전체의 1/5도 안 되었다. 밀랍본 587건은 그마저도 몇예 첫거나 진흙 등에 오염된 경우가 많았다.

3) 1664~5년 실록 수리 복원 작업21)

청군에 의한 1636년의 실록 피해를 복구하고 체손 실록을 수리복원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1644년 낙권 실태의 출추관 사고본으로의 대체
② 1664년 가을 표지 개장: 비단 표지 탈락 실록에 대해 황장의(黃壯衣) 표지로의 개장
③ 1664년 겨울 제본 실 교체: 청색 비단 표지 실록에 대해 제본 실 교체
④ 1665년 9월 실록 상태 파악 : 동서 대상 및 분량 파악

20) 퇴송은 1권 전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밀랍 낙장이 남아 있는에도 1권 전체를 필사하거나 출추관본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여기서는 일단 낙권으로 처리하였다.
21) 이상찬, 앞의 2011년 논문 참조.
⑤ 1665년 10~12월 등서(贈書) 작업: 낙권 및 낙장 등서

낙권 등서, 낙장 보사 작업에서 첫 번째 원칙은 춘추관 사고본 실록이 있을 경우 춘추관 사고본으로 대체하고 춘추관 사고본이 없을 경우 적상산 사고본을 등서한다는 것이었다. 낙장이 있는 밀랍본에 대해서는 춘추관 사고본이 있을 경우 낙장을 보사하지 않고 춘추관본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밀랍본 실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 파손, 오염, 화재 피해 등의 경우 적상산본을 등서 하였다. 춘추관 사고본은 1606년 제간행된 실록으로 2~4권을 1책으로 묶었는데 춘추관 사고본을 부분하던 실록 권차에서 제외하고 춘추관본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밀랍본이 남아있어서 낙장을 보사하면 되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적상산본을 등서한 경우도 있다.

이 시기 춘추관본으로의 대체, 적상산 사고본의 등서 상황을 권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국왕</th>
<th>대조</th>
<th>정종</th>
<th>대조</th>
<th>세종</th>
<th>단종</th>
<th>세조</th>
<th>예종</th>
<th>성종</th>
<th>인산군</th>
<th>중종</th>
<th>명종</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춘추관본</td>
<td>4</td>
<td>4</td>
<td>1</td>
<td>11</td>
<td>11</td>
<td>9</td>
<td>1</td>
<td>4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등서</td>
<td>7</td>
<td>3</td>
<td>5</td>
<td>29</td>
<td>1</td>
<td>15</td>
<td>6</td>
<td>100</td>
<td>10</td>
<td>23</td>
<td>2</td>
<td>201</td>
</tr>
</tbody>
</table>

적상산본을 등서한 실록과 춘추관본 실록은 밀랍본과 비교하면 번색, 크기와 판형 등이 다르다. 밀랍본이 805권 576책임에 비해 춘추관본은 804권 259책이었다. 춘추관본과 등사본은 크기가 43×31cm, 판형은 15행 34자, 표지는 황청로서 간행 당시의 밀랍본 실록과 비교할 때 크기가 작았고 판형과 내지의 장수가 전혀 달라졌다.

22) 세종 권115 권119, 성종 권96~99, 명종 권8은 밀랍본 실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로 등사한 경우로 세종 권115는 부패와 파손이, 권119는 부패와 오염이 심했고 성종 권96~99는 화재로 인한 글씨 결정이 있었으며 명종 권8은 전권이 부식으로 파손(盡爲腐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상산 사고본을 등서한 경우이다.

23) 세조 권27, 성종 권63 두 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권은 낙장이 전혀 없음에도 춘추관본으로 대체되었다.

24) 정종 권1, 세조 권32, 명종 권16.
6. 낙장 등서와 밀랍 처리

낙진을 동서한 경우내지를 밀랍 처리하지 않았지만 낙장등서한 경우에는 밀랍 처리하였다. 낙장 부분에 대한 보사(補箋) 상황을 조사한 결과『成宗實錄』39권까지는 보사 부분을 밀랍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7. 화제 혼적 절단

화제나 오염으로 책 가장자리가 파손된 경우 적당히 절단하여 화제나 파손의 혼적을 없애고 책 크기를 줄였다. 1664년에 '黃箋' 표지로 가장한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명종실록이 대표적인 것으로 원래 크기보다 세로 5~7cm 정도 작다.

4. 밀랍본 실록의 손상 상황

병자호란으로 인한 실록의 피해에 대해 낙진, 낙장, 표지 탈락 등의 상황은 앞에서 이미 정리하였다. 낙진, 낙장, 표지 탈락 이외에도 1636년 실록은 진흙 오염, 펜손과 오염, 빗물로 인한 부패와 파손, 화재 혼적, 글자 판독 불능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록의 이러한 피해는 1654년에 처음으로 '형지안'으로 정리되었고 1666년까지 수리복원의 내용을 정리한 형지안들이 작성되었다. ③

1654년의 형지안에 "雨腐, 破腐, 腐朽, 全冊破腐" 등 부패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654년 이전에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수를 위해 밀랍 처리를 하였지만, 밀랍 처리한 종이가 일단 물에 적게 되면


26) 『順治十一年十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奎9545, 1654년);『順治十七年十二月初三日實錄移安新設史閣後形止案』(奎9592, 1660년);『康熙二年九月二日實錄新增分割形止案』(奎9564, 1663년);『康熙三年十一月初日實錄曝曬及改換時形止案』(奎9550, 1664년);『康熙三年九月初四日實錄曝曬及改換時形止案』(奎9544);『康熙三年十二月日實錄改進時形止案』(奎9713);『康熙四年九月日實錄落卷落捲張張出時形止案』(奎9552, 1665년);『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張出奉安後形止案』(奎9689, 1666년)
오하려 습기를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물기가 스며든 천 장기 간 방치하였을 경우 부패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다시피 1637년 2월 실록의 피해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직후에는 물에 옷은 실록을 건조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을 확인하는 164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제대로 건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1654년에 이미 부패한 실록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화재 혼적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화재 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실록을 부패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1636년 청군이 물을 질렀을 가능성과 1653년 실록 2권과 의궤 여러 권이 불났다는 강화부 사고 화재(27)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거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까였었을 것이고 이 때 밀접처리된 실록에 물기가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패 기록은 세종실록과 명종실록에만 나타난다. 세종실록이 부패한 경우가 많았고 명종실록은 권8 한 권만이 '책 전체가 부패하고 파손되었다(全冊腐破)'고 하였다. 1654~65년의 형지안들에 기록된 세종실록에 대한 부패 및 파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세종실록의 부패에 관한 형지안의 기록

<table>
<thead>
<tr>
<th>권</th>
<th>1654</th>
<th>1660</th>
<th>1663</th>
<th>1664.9</th>
<th>1664.12</th>
<th>1665</th>
</tr>
</thead>
<tbody>
<tr>
<td>67</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69</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77</td>
<td>泥污雨腐</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d></td>
</tr>
<tr>
<td>101</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02</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03</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06</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15</td>
<td>雨瀉破腐</td>
<td></td>
<td>全書腐破</td>
<td></td>
<td></td>
<td></td>
</tr>
<tr>
<td>116</td>
<td>雨瀉破腐</td>
<td></td>
<td>微腐</td>
<td></td>
<td></td>
<td></td>
</tr>
<tr>
<td>117</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18</td>
<td></td>
<td></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r>
<tr>
<td>119</td>
<td>廢朽</td>
<td></td>
<td>全書徹腐</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7)『孝宗實錄』호종 4년 11월 6일조.
위 표를 보면 1654년에는 부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단순히 파손 사실만 확인하였던『세종실록』권 67, 101, 103, 106, 117, 118 등이 1664년에는 전체가 '약간 부패'(全卷微損), '부패와 온손'(全卷腐傷)을 확인할 수 있다. 1654년 이후에도 '빛물 짐투로 인한 부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각 서고에서 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의 세종실록 12권과 명종실록 1권은 온손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였다. 또한 위의 세종실록 12권을 포함하여 권 65부터 권 132까지 68권은 연속적으로 상태가 불량하였는데 습기로 인한 부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습기로 인한 부패뿐만 아니라 이 68권 안에서 16권의 낙인, 33권에서 낙장 또는 파장, 64권의 표지 탈락 또는 파손(청장 표지는 4권뿐) 등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654년 이전에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것, 1654년 이후 10년 동안 새로운 실록들에서 부패가 새롭게 진행되었다는 것, 1654~1665년 형질안에 부패 사실이 기록된 실록의 경우 현재에도 손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등은 향후 손상 실록의 보존처리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실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첫째, 밀랍본의 손상은 거의 대부분 세종실록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왕비의 실록은 상대가 약한 편이다.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세종실록조차도 상태가 약한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재 전하고 있는 세종~예종 실록은 모두 1473년(성종 4)에 간행된 것인데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실록 중에서도 손상 상태가 심각한 실록은『세종실록』에만 들어있고 문중~예종 실록에는 손상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단 한 권도 없다.

둘째, 낙장을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1665년에 밀랍 처리를 하고 있는데 1665년도에 밀랍 처리한 종이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깔끔 형질조차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보존학과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8) 1665년 이전에 부패손상(腐破)된 부분이 1665년 밀랍 처리한 보사 부분에 옮겨

28) 1665년에 밀랍 처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665년에 사용한 밀랍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밀랍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밀랍 처리된 앞뒤의 내지로부터 밀랍이 흡수되어 있어서 밀랍의 흡수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봉은 사례도 있었다.\(^{29)}\)

형지안의 기록만으로 보면 밀랍 처리된 실록이 사고 밖에서 눈부를 맞고 진흙에 오염되었지만 냉바로 진조하거나 덮어내지 않고 8년 정도 방치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실록의 상태 역시 1654년 이후의 형지안 기록과 대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664~5년에 수리보수를 일단락지었지만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슬기를 가지고 있던 일부의 책이 330 여년 동안 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정촉산 사고에의 봉안과 관리

1) 정촉산 사고본 실록의 전체 책수

실록의 책수는 정촉산 사고본이 1,187책, 태백산 사고본이 848책, 적상산 사고본이 823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록의 책수는 원칙적으로 사고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조~명종 실록과 광해군일기사 사고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선조실록과 인조대 이후 실록의 책수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524책으로 4 사고가 기본적으로 같다.

\(^{29)}\) (표 7)에 정리된 세종실록 권77은 표지가 떨어져 나가서 황량의로 개장하였고 낙장된 내지 11장을 보사하였다. 물론 보사한 11장을 밀랍 처리하여 양면, 갈인, 갈편은 개방 태조, 전권 약간 부패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1654년 이전에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경우인데 채미있는 것은 1654년 이전 부패 부분이 보사 11장 중 몇 장에 올겨져 있었다. 1654년 이전에 진행되었던 부패가 1665년 이후에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8) 선탕실록, 인조대 이후 실록의 책수

<table>
<thead>
<tr>
<th>권</th>
<th>책</th>
<th>권</th>
<th>책</th>
<th>권</th>
<th>책</th>
</tr>
</thead>
<tbody>
<tr>
<td>선탕</td>
<td>원</td>
<td>221</td>
<td>116</td>
<td>형종</td>
<td>원</td>
</tr>
<tr>
<td></td>
<td>수정</td>
<td>42</td>
<td>8</td>
<td>개수</td>
<td>개수</td>
</tr>
<tr>
<td></td>
<td>장래군</td>
<td>187</td>
<td>40</td>
<td>숙종</td>
<td>숙종</td>
</tr>
<tr>
<td></td>
<td>인조</td>
<td>50</td>
<td>50</td>
<td>경종</td>
<td>원</td>
</tr>
<tr>
<td></td>
<td>효종</td>
<td>21</td>
<td>22</td>
<td>수정</td>
<td>수정</td>
</tr>
</tbody>
</table>

정식산, 태백산, 적상산 사고의 책수 차이는 첫째, 전주사고본 실록의 소장 여부에 기인한다. 전주사고본은 576책이고 1606년 제간행본은 259책으로 원래의 분책을 바꾸어서 2~3권을 1책으로 만든 결과 318책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전주 사고본은 해주 영법 등지를 거쳐 1603년 강화부 사고로, 1660년 정복산 사고로 이관되었다. 적상산과 태백산 사고본 실록은 제간행본 259책이다.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광해군일기』에 있다.『광해군일기』의 경우 활자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정초(正草) 39책 2권, 중초(中草) 64책 1권을 만들었다. 30) 1606년 실록 제간행 때와 마찬가지로 전란 직후 경제 사정 때문에 인쇄본 대신 필사본으로 정초를 2부 만들고 중초도 제초하지 않고 제본하여 정초는 강화 사고와 적상산 사고에, 중초는 태백산 사고에 봉안하였다. 31)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원래 78책이었는데 오대산 사고에『광해군일기』의 아예 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수 차이가 난다. 32)

30) 織修廳啓曰  光海日記正寫一百八十六卷成三十九冊二件 又取中草 增加牲出 據六十四冊 合三件 既已完畢『인조실록』人조 12년(1634) 5월 17일. 현재 정복산 사고본『광해군일기』(卷 No. 12733)는 40책이다. 실록 간행시 중초 중초 정초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중초를 교정한 후 교정 결과를 반영하여 폐 인쇄에 들어간다. 따라서 인쇄본의 경우 정초는 폐 본 인쇄된 것을 의미한다.
31) (領議政金壽恒曰) 仁祖朝修正時 物力不逮 只書二本 藏於赤雲江華 而太白山則藏以中草 而.『숙종실록』숙종 12년(1686) 11월 3일조.
32) 오대산 사고본 실록 78책의 구성에 대해서는 오대산 사고의 형지안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규정각이 소장하고 있는 정족산 사고본 실록을 조사하면 1,187책보다 훨씬 더 많다. 33) 후술하겠습니다만 1,187책은 실록부에 남겨있던 실록이고, 이 외에도 밀랍본 24책, 출주관 사고본 44책, 밀랍 남장, 기타 필사본, 출주관 사고본 남장 등이 더 있다.

2) 정본 613책의 보관과 관리

1660년대의 실록 수보 작업은 정족산 사고본 태조~명종 실록이 다른 사고본 보다 책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구성이 복잡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1636년의 피해와 1664~5년 그 피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태조~명종 실록은 575책에서 613 책으로 책수가 늘어났다. 이를 각 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table>
<thead>
<tr>
<th>표 9</th>
<th>태조~명종 실록의 책수 변화</th>
</tr>
</thead>
<tbody>
<tr>
<td></td>
<td>태조</td>
</tr>
<tr>
<td>원래 권수</td>
<td>15 6 36 163</td>
</tr>
<tr>
<td>책수</td>
<td>15 6 36 163</td>
</tr>
<tr>
<td>1666년 이후 책수</td>
<td>13 4 35 151</td>
</tr>
</tbody>
</table>

1660년대의 수리복원 과정에서 2~4권 1책인 1606년 제간행본을 등시하거나 출주관 사고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책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종과 연산군 실록의 책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 전체 책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성종과 연산군 실록의 책수가 늘어난 이유는 원래의 2~4권 1책이 1660년대에 1권 1책으로 분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숙종 때

33) 태조~명종 실록의 경우 '책'보다는 '권'으로 통일하여 세는 것이 훈련을 즐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은 실록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데 비해 '권'은 본문 첫장을 관상, 밑말 장 등에 표시되기 때문에 남장으로 훨씬도 권수를 확인할 수 있다.
34) 『萬曆二十二年甲午八月十六日黃海道海州史庫曬錄形止案』(卷 10006의 1) 『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掣出奉安後形止案』(卷 9689) 참조.
간행된『단종실록 부록』1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613책은 다음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임정해탄 이전 밀랍본 원래의 모습을 전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밀랍본이지만 부분적으로 원본의 모습을 잃고 있는 경우 : 제본 끝 교체, 황장
한지 표지의 교체, 낙장 보사, 상하 절단으로 인한 크기 축소 등
③ 1606년 제간행본 실록(춘추관 사고본 전존분)
④ 적상산 사고본 동사
⑤ 기타

1664∼5년의 수보 작업이 끝나고 1666년 1월 실록을 정축산 사고에 다시 봉안할 때 태조~명종 실록은 일련번호를 붙인 29개의 실록제와 별도의 3가 제
예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 중 일련번호를 붙인 29개의 제예 보관한 실록은 정
본, 즉 ‘영광 보관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별도의 3가의 제예 보
관한 실록은 중복된 실록으로서 정본 실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기부터 실록 정본을 제예 답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전주사고
에서는 태조~명종 실록을 모두 48개의 실록제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48개의 실
록제에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전주에서 해주로 이동하면서 실록은 45
개의 실록제에 답겨져 이동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실록제에 일련번호를 붙였
다. 45개의 실록제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영변부 객사로 실록이 옮
겨진 이후 중대 정리되었고 1601년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③ 45개

35)『단종실록 부록』의 편찬 간행은『속종실록』속중 30년(1704) 11월 29일조 참조.
36)『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謢出奉安後形止案』(奎 9689) 참조.
37)『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奎10004, 1588년),『萬曆十九年
辛卯八月二十八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奎10002, 1591년) 참조.
38) 실록제 45개에 대해 1번째부터 45번째까지 일련번호를 붙였다.『萬曆二十二年甲午八月十六
日黃海道海州史庫曝曬形止案』(奎10006의 1, 1594년) 참조. 1597년 영변부 교향산으로 옮겨졌을 때도 양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실록의 보관은 원의 형식안과 기본적으로 같
다.『萬曆二十七年己亥九月二十七日平安道寧邊地香山史庫曝曬形止案』(奎10003, 1599년)
39)『萬曆二十九年辛丑九月初十日平安道寧邊府史庫曝曬形止案』(奎10005, 1601년),『萬曆三
十一年癸卯十月十八日京畿道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奎9485, 1603년),『萬曆三十四年丙午
六月初三日京畿道江華府史冊奉安形止案』(奎9467, 1606년) 참조. 특히 이 3개의 형지
의 실록례에 분장하던 상황에서 1636년 전체 804권 중 217권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1654년부터는 30개의 실록례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40)  
1665년 낙전 등사, 낙장 보사 등의 작업이 끝나고 실록 권차를 새로 정립하면서 다시 29개의 실록례에 보관하게 되었다. 실록례 1개의 차이간 하지만 그 내용은 1654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1666년의 실록 분장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41) 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1666년 1월 정축산 사고의 실록례 분장(分藏) 현황

<table>
<thead>
<tr>
<th>번호</th>
<th>분장 실록</th>
<th>번호</th>
<th>분장 실록</th>
<th>번호</th>
<th>분장 실록</th>
</tr>
</thead>
<tbody>
<tr>
<td></td>
<td>원명</td>
<td>권수</td>
<td>채수</td>
<td></td>
<td>원명</td>
</tr>
<tr>
<td>1</td>
<td>태조</td>
<td>1~15</td>
<td>13</td>
<td>11</td>
<td>세조</td>
</tr>
<tr>
<td></td>
<td>장종</td>
<td>1~6</td>
<td>4</td>
<td></td>
<td></td>
</tr>
<tr>
<td></td>
<td>1~4</td>
<td>4</td>
<td></td>
<td></td>
<td>11~49</td>
</tr>
<tr>
<td>2</td>
<td>태종</td>
<td>5~18</td>
<td>13</td>
<td>12</td>
<td>예종</td>
</tr>
<tr>
<td></td>
<td>19~28</td>
<td>10</td>
<td></td>
<td></td>
<td>1~39</td>
</tr>
<tr>
<td></td>
<td>29~36</td>
<td>8</td>
<td></td>
<td></td>
<td>40~91</td>
</tr>
<tr>
<td></td>
<td>1~7</td>
<td>5</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5</td>
<td>8</td>
<td>15</td>
<td></td>
<td></td>
</tr>
<tr>
<td>4</td>
<td>8~37</td>
<td>29</td>
<td>15</td>
<td></td>
<td></td>
</tr>
<tr>
<td>5</td>
<td>33~63</td>
<td>26</td>
<td>16</td>
<td></td>
<td></td>
</tr>
<tr>
<td>6</td>
<td>64~91</td>
<td>22</td>
<td>17</td>
<td></td>
<td></td>
</tr>
<tr>
<td>7</td>
<td>92~120</td>
<td>29</td>
<td>18</td>
<td></td>
<td></td>
</tr>
<tr>
<td>8</td>
<td>121~145</td>
<td>25</td>
<td>19</td>
<td></td>
<td></td>
</tr>
<tr>
<td>9</td>
<td>146~163</td>
<td>18</td>
<td></td>
<td></td>
<td></td>
</tr>
<tr>
<td>10</td>
<td>분종</td>
<td>1~6</td>
<td>6</td>
<td></td>
<td></td>
</tr>
<tr>
<td></td>
<td>7~13</td>
<td>6</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14</td>
<td>14</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40)『順治十一年十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奎 9645).
41) 조선시대 실록례 35개가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실록을 재에 담지 않고 서가에 배열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총독부 이후가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다.
실록궤의 별도의 궤 두 종류의 궤에 실록을 담아 관리함으로써 정본과 비정본을 구분하는 방식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도서번호를 부여할 때도 반영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실록궤에 분정하였다던 613책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도서번호가 부여되었다.\(^{42}\)

<table>
<thead>
<tr>
<th>태조</th>
<th>정종</th>
<th>태종</th>
<th>세종</th>
<th>문종</th>
<th>단종</th>
<th>세조</th>
<th>예종</th>
<th>성종</th>
<th>연산</th>
<th>중종</th>
<th>인종</th>
<th>명종</th>
</tr>
</thead>
<tbody>
<tr>
<td>13책</td>
<td>4책</td>
<td>35책</td>
<td>151책</td>
<td>12책</td>
<td>15책</td>
<td>42책</td>
<td>5책</td>
<td>150책</td>
<td>48책</td>
<td>102책</td>
<td>2책</td>
<td>34책</td>
</tr>
<tr>
<td>12719</td>
<td>12720</td>
<td>12721</td>
<td>12722</td>
<td>12723</td>
<td>12724</td>
<td>12725</td>
<td>12726</td>
<td>12727</td>
<td>12728</td>
<td>12729</td>
<td>12730</td>
<td>12731</td>
</tr>
</tbody>
</table>

3) 정본 이외의 실록의 보관과 관리

1666년 정촌산 사고에 실록을 붙인할 때 실록궤에 담고 나서 남은 "모대십사넷, 모대십사넷, 모대십사넷, 모대십사넷, 모대십사넷"을 3개의 궤에 함께 넣었다고 하였다.\(^{43}\) 여기서 '모대'는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밀랍본 원본을, '모대'는 옛추관 사고문, '모대'는 밀랍본 낙장본을, '모대'는 밀랍본 낙장본을 의미한다.

이들 '모대, 모대, 모대' 세 종류를 정본 613책과 구분하여 실록궤가 아닌 별도의 궤에 담아 보관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정본이 아니라는 의미, 즉 정본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대, 모대, 모대' 세 종류는 현재에도 '정촌산 사고문 실록 1,187책' 안에 들어있지 않다.

여衒은 밀랍본이지만 실록궤에 넣지 않은 실록 24책과 제본되지 않은 낙장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밀랍본 24책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4}\)

\(^{42}\) 선조 이후는 '12732 ~ 12746'으로 도서번호가 부여되었다.
\(^{43}\) 『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謹案奉安後形止案』(卷 9689)의 『實錄新秩』 참조.
\(^{44}\) 이 24책 이외에 『공정대왕실록』 권1(卷 No. 25090)도 밀랍본 실록이다.
### 표 12

실험 절본에서 제외된 밀랍본 실험의 성황

<table>
<thead>
<tr>
<th>왕명</th>
<th>번</th>
<th>표지</th>
<th>갑수</th>
<th>도서번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태종</td>
<td>12</td>
<td>황장</td>
<td>46</td>
<td>12747</td>
<td>권 11~12 춘추관본 1책 대체</td>
</tr>
<tr>
<td>세종</td>
<td>119</td>
<td>황장</td>
<td>18</td>
<td>12748</td>
<td>권 119 적상산본 등사, 대체</td>
</tr>
<tr>
<td>문종</td>
<td>9</td>
<td>청장</td>
<td>39</td>
<td>25096</td>
<td>충북, 14장은 세종실록 산업본에 재본</td>
</tr>
<tr>
<td>세조</td>
<td>27</td>
<td>황장</td>
<td>32</td>
<td>12750</td>
<td>춘추관본 권27~9(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32</td>
<td>황장</td>
<td>30</td>
<td></td>
<td>1<del>3, 28</del>30 6장이 권 25096에 복여있음.</td>
</tr>
<tr>
<td>예종</td>
<td>5</td>
<td>청장</td>
<td>43</td>
<td>12751</td>
<td>춘추관본 권4~5(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6</td>
<td>황장</td>
<td>38</td>
<td></td>
<td>춘추관본 권6~8(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8</td>
<td>청장</td>
<td>25</td>
<td></td>
<td>춘추관본 권6~8(1책)으로 대체</td>
</tr>
<tr>
<td>성종</td>
<td>59</td>
<td>황장</td>
<td>24</td>
<td>12752</td>
<td>춘추관본으로 대체</td>
</tr>
<tr>
<td></td>
<td>62</td>
<td>황장</td>
<td>8</td>
<td>25102</td>
<td>춘추관본 권62~3(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63</td>
<td>없음</td>
<td>16</td>
<td></td>
<td>성종실록 산업본에 합결</td>
</tr>
<tr>
<td></td>
<td>81</td>
<td>황장</td>
<td>11</td>
<td>12752</td>
<td>춘추관본 권80~1(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96~99</td>
<td>황장</td>
<td>48</td>
<td></td>
<td>적상산본 등사</td>
</tr>
<tr>
<td></td>
<td>271</td>
<td>황장</td>
<td>47</td>
<td>12752</td>
<td>춘추관본 권271~4(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278</td>
<td>황장</td>
<td>27</td>
<td></td>
<td>춘추관본 권277~8(1책)으로 대체</td>
</tr>
<tr>
<td>연산군</td>
<td>7</td>
<td>황장</td>
<td>35</td>
<td>12753</td>
<td>춘추관본 권5~7(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30</td>
<td>황장</td>
<td>38</td>
<td></td>
<td>권 25096에도 1장이 합결됨</td>
</tr>
<tr>
<td></td>
<td>61</td>
<td>황장</td>
<td>51</td>
<td>12754</td>
<td>춘추관본 권30으로 대체</td>
</tr>
<tr>
<td></td>
<td>62</td>
<td>황장</td>
<td>24</td>
<td></td>
<td>춘추관본 권61~2(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77</td>
<td>황장</td>
<td>23</td>
<td></td>
<td>춘추관본 권61~2(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78</td>
<td>황장</td>
<td>47</td>
<td></td>
<td>춘추관본 권77~8(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91</td>
<td>황장</td>
<td>42</td>
<td></td>
<td>춘추관본 권77~8(1책)으로 대체</td>
</tr>
<tr>
<td></td>
<td>91</td>
<td>황장</td>
<td>14</td>
<td></td>
<td>춘추관본 권90~1(1책)으로 대체</td>
</tr>
<tr>
<td>명종</td>
<td>8</td>
<td>황장</td>
<td>24</td>
<td>12755</td>
<td>적폐 부대 파손(지폐 모프)으로 적상산본 등사</td>
</tr>
<tr>
<td></td>
<td>16</td>
<td>황장</td>
<td>51</td>
<td></td>
<td>낙장 1장임에도 춘추관본으로 대체</td>
</tr>
</tbody>
</table>
또한 1636년에 없어진 실록 중에서 춘추관 사고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남은 것이 위의 ‘搨小’ 실록 44책이었다. 이 44책은 블록본이 있는 복본이다. 경북군에 있었던 춘추관 사고는 임직권한으로 불탄 이후 재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병조 건물에 사고를 두고 있다가 1624년 이룹의 난으로 또 다시 소실되었다. 1606년 병조 건물에 봉인하였던 재간행 실록 역시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고 잔존 실록과 시정기를 강화부 사고로 옮겼던 것으로 보이고 1600년대의 수리복원 과정에서 이 춘추관 사고본 잔존본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실록에 넣지 않은 블록본과 춘추관 사고본 잔존본 역시 현재 도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thead>
<tr>
<th>표 13</th>
<th>종</th>
<th>세종</th>
<th>문종</th>
<th>세조</th>
<th>예종</th>
<th>성종</th>
<th>영종</th>
</tr>
</thead>
<tbody>
<tr>
<td>도서 번호</td>
<td>12747</td>
<td>12748</td>
<td>12749</td>
<td>12750</td>
<td>12751</td>
<td>12752</td>
<td>12753</td>
</tr>
<tr>
<td>척수</td>
<td>춘추판본</td>
<td>3</td>
<td>4</td>
<td>1</td>
<td>4</td>
<td>2</td>
<td>6</td>
</tr>
<tr>
<td></td>
<td>밀랍본</td>
<td>1</td>
<td>2</td>
<td>2</td>
<td>3</td>
<td>6</td>
<td>1</td>
</tr>
<tr>
<td>합계</td>
<td>4</td>
<td>6</td>
<td>1</td>
<td>6</td>
<td>5</td>
<td>12</td>
<td>3</td>
</tr>
</tbody>
</table>

45) 1811년에도 춘추관 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72책의 실록 중 6책을 제외한 66책의 실록이 불타버렸다(『순종실록』순조 11년(1811) 옹3월6일, 옹3월7일조 참조).『영종실록』과 『정종실록』은 춘추관 사고에 불탄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정종실록』정조 5년(1781) 7월6일,『순종실록』순조 5년(1805년) 8월2일조) 아마도 인조대 이후의 실록이 춘추관 사고에 불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숙종실록』숙종 16년(1690) 4월14일). 또한 인조은 3월 6일조 기사를 보면 불에 타지 않은 6책의 실록을 순정원일기 장고에 임시로 보관할 것이 견고히 되고 있었다. 이 6책의 실록의 존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에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46) 1629년과 1633년도 강화부 사고의 행지안에는 춘추관 사고본 실록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다만 1633년 행지안에 “춘추관사고본 실록”이 기록되어 있다(『仁祖實錄』15년 2월27일,『崇禎二年己巳四月十五日江華府史庫所藏曠散等案』(卷9443),『崇禎六年癸酉七月二十六日史庫所藏曠散等案』(卷9443) 참조). 또한 1636년의 실록 파해를 보고하는 기록에서 “江都之變 本館實錄時政記之移置者 盡皆散失”(『仁祖實錄』仁祖 15年 2月 27日)이라고 한 바 “춘추관사고본”은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밀람 납장은 현재 21책 47)으로 묶여져 있는데 현존하는 밀람 납장의 상황을 실
록 권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table>
<thead>
<tr>
<th>과점 처리 밀람 납장</th>
<th>납장 처리 밀람 납장</th>
</tr>
</thead>
<tbody>
<tr>
<td>태조</td>
<td></td>
</tr>
<tr>
<td>경종</td>
<td>1(12)</td>
</tr>
<tr>
<td>태종</td>
<td>11(12), 16(1)</td>
</tr>
<tr>
<td>단종</td>
<td></td>
</tr>
<tr>
<td>세조</td>
<td>15(1), 19(1), 23(4), 25(1)</td>
</tr>
<tr>
<td>예조</td>
<td>2(1), 7(5)</td>
</tr>
<tr>
<td>성조</td>
<td>15(3), 22(1), 30(2), 35(2), 46(7/13), 50(2), 69(2), 80(2), 91(10), 92(5), 93(4), 94(8), 263(2), 272(3), 273(3), 277(3), 279(2)</td>
</tr>
<tr>
<td>현산군</td>
<td>3(4), 5(1), 6(2), 19(4), 20(8), 31(5)</td>
</tr>
<tr>
<td>중종</td>
<td>14(5), 75(1), 79(4), 86(3)</td>
</tr>
<tr>
<td>명종</td>
<td>23(3)</td>
</tr>
</tbody>
</table>

여기서 '낙관 처리 밀람 납장'은 낙관으로 처리되어 적상산 사고본을 등시하였
거나 춘추관 사고본으로 대체한 경우인데 밀람날장이 남아 있는 경우하고 '낙장
처리 밀람 납장'은 부분 납장으로 밀람 납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
분을 적상산 사고본에서 등시한 경우이다. 따라서 '낙장 처리 밀람 납장'으로 분
류되어 있는 납장은 구체적 등시할 필요가 없었다. 밀람 원본이기 때문에 지금

47) 21책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적당히 묶은 것이기 때문에 밀람 납장은 '책'보다는 '권'으로
동계를 내야 정확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48) ( ) 안에 전존 장수이고 전체 장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전존장수/전체장수'의 형식
으로 표시하였다.
이라도 보사 부분을 이 날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1664~5년 실록 수리복원 과정에서 밀랍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직접사 사고본 실록을 동시한 경우도 있고 49) 또한 춘추관 사고본 날장도 3~4책이 또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태조~명종 실록에 대해 입천해란 이전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외형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재간행으로 인해 달라진 내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실패 보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밀랍본 804권 전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선 외형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표 5에서 보듯이 1) 217권의 낙권 복원, 2) 202권에 들어있 는 낙장 보사 부분의 복원, 3) 414권에 대해 총열색 비단 표지의 복원, 4) 손상 실록의 보존처리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전주사고본 태조~명종 실록은 전체 804권 중 587권이 남아있다. 이 587권은 밀랍본이지만 1636년 당시 몰에 젖거나 진흙에 오염되었고 1660년대의 수리 보수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가 변색되고 파손되었다. 이 변색 파손된 일부 실록이 바로 '복원 또는 보존처리'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존처리를 통해 손상의 진행은 정지시킬 수 있지만 부패, 갈변, 흔한 등으로 인해 조각조각 부서진 한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촉열색 비단 표지의 복원은 조선시대와 독일은 비단의 직조, 총열색 기술의 복원, 장황 기술 복원 등이 관련된다. 현재 이들에 대해 일련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17권의 낙권 복원과 202권에 들어있는 낙장 보사 부분의 복원은 원래 판형과

49)『세종실록』 권 133, 권 135 두 책이 대표적이다.
글씨체, 먹 인쇄 기술 등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 다. 그러나 판형 복원과 관련하여지는 <표 14>에 정리된 ‘낙장 처리 밀랍 날장’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재단행으로 변화된 내용을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은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표 12>을 보면 『세종실록』권 119, 『세조실록』권 27, 『성종실록』권 63과 권96~99 등 춘추관 사고본으로 대체되어 있지만 낙장이 없는 실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쪽엽색 비단 표지로 장황한 새롭게 하여 춘추관 사고본과 대체되어 있던 춘추관 사고본과 교환하면 되는 경우이다. 이들 외에도 <표 12>를 보면 1~2장 또는 7~8장만 보사하면 한 권으로 완성되는 실록이 13권이나 된다. 또한 <표 14> ‘밀랍날장 잔존 현황’의 ‘낙장 처리 밀랍 날장’은 밀랍 날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상산 사고본의 해당 부분을 등시한 것으로 이 보사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낙장 처리 밀랍 날장’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밀랍본과 달라진 문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재단행본 실록, 또는 재단행본을 등시한 필사본을 밀랍 원본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여서 일부이긴 하지만 문자 정보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테조~명종 실록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본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테조~명종 실록의 정본화 작업은 한자, 비단, 염료(쪽), 밀랍, 인쇄에 사용된 먹 등 실록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비단 쪽엽색 기술, 먹 인쇄 기술 등 실록 제작 기술의 복원이 선결조건이다. 재료와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복원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파괴 분석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괴분석은 재료와 기술의 복원 이외에도 밀랍 처리 기술의 복원, 손상 원인의 파악, 보존처리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의 운종실록 권9는 ‘奎 25096’와 ‘奎 12723’ 각각 한 책씩 모두 두 책이 있다. ‘奎 12723’은 실록제에 포함되어 정본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비해 ‘奎 25096’은 11장의 낙장이 있는 상태로 실록제가 아닌 별도의 계에 보관되어 왔고 정본에서 제외되어 있다. 밀랍본으로 같은 내용이 두 권 있는 유일한 경우로서
'술 25096'에서 파괴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표 14〉의 '밀랍 납장'에 파손된 납장이 상당수 들어있는바 이 파손된 납장 역시 파괴 분석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장축산 사고, 밀랍본 실록, 제간행 실록, 정본화, 형태복원

투고일(2013. 9. 1), 심사시작일(2013. 9. 2), 심사완료일(2013. 9. 17)
<Abstract>

The Composition of Jeongjok Mountain Archives’ Taejo ~ Myungjong Sillok and its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

Lee, Sang-Chan*

The Silloks(Annals of Joseon Dynasty) from Taejo(the 1st king of Joseon) to Myoungjong(the 13th king) which are beeswaxed copies with silk up cover and waxed paper inside were originally four sets. One set comprises of 805 chapters and 576 volumes. Three sets of Taejo Sillok ~ Myoungjong Sillok were burnt and one set which is Jeonju copy comprised of 804 chapters and 575 volumes is survived after Japanese Invasion in 1592(Imjinwoeran).

217 volumes of beeswaxed Silloks were disappeared during Manchu War in 1636(Byungiahoran). The remaining 587 volumes are damaged by water and or mud. The book covers of 414 volumes are missing and 202 volumes have missing and torn pages. 155 volumes out of 804 were left intact.

Damaged Taejo Silloks ~ Myoungjong Silloks were moved to the Jeongjok mountain archives in 1660. They were restored 5 types: ① original beeswaxed version before Imjinwoeran ② partially damaged beeswaxed version(replacement of binding string, replacement of the book cover to yellow hanji, replacement of fallen pages with handwritten copy) ③ re-published version of 1606 ④ copied version of Jeoksang mountain archives’ Sillok ⑤ other appearance of Sillok. These 5 types of Silloks maintain the present state. However, restoration is not completed, so damage is going on.

Conservation of damaged Sillok can not restore the whole beeswaxed Sillok which is comprised of 804 chapters and 575 volumes.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whole beeswaxed Sillok needs to make a new original and to restore of the old form. Restoration of the form includes the work of conservation, restoration of missing 217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NU.
volumes, binding of silk cover, putting handwritten parts of fallen pages into print.

They were replaced with Chunchuguan Archives' Sillok, although beeswaxed Sillok is still remained.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y contain different texts information from beeswaxed Sillok. Sillok should be re-published or changed copy version to beeswaxed original and make the original text contents for making a new original copy of Sillok.

**Key Words**: Jeongjok Mountain Archives, Beeswaxed Sillok, Re-published Sillok, Making a new original copy of Sillok, Restoration of the form